

바라밀현장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자원봉사자

사연찾아 취재
후원금 모아 전달
신분증 없던 시절
간첩으로 몰리기도
'한바가지 물'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봉사



◁ 불교방송의 인기프로 '거룩한 만남'의 숨은 주역들. 왼쪽부터 김동명, 장인희, 서종철, 황문순, 심성연 씨.

마른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펌프 뒷부분에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 한다. 이 물을 곧 올라올 물을 마중하러 나간다는 뜻으로 '마중 물'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사회에 '한 바가지의 물'이 되고자 자처한 사람들이 바로 불교방송의 이웃돕기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 자원봉사자들이다.

봉사자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우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의 사연을 찾아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는 것과 청취자들이 보내오는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는 것이다. 듣기로는 쉬워 보이지만, 지하철과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전국 방방곡곡의 동사무소와 병원, 보건소를 쫓아다니며 사연을 모으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없던 시절에는 간첩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기도 했다. 또 한 달에 몇 번씩 있는 지방 출장예. 수해자가 인터뷰를 거부할 때면 몇

전국 뛰며 거룩한 인연 만들기 13년

번이고 다시 찾아가야 하는 등 일의 특성상 몇 달 만에 봉사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다. 인터뷰를 통해 채록한 그들의 애달픈 사연과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듣고 보내오는 청취자들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매주 목요일 봉사자들과 진행자 도현 스님이 직접 찾아가 전달한다. 자원봉사자 김동명, 황문순, 장인희, 서종철 씨. 이들 네 명은 1991년 첫 방송 때부터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원년 멤버들'이다. 서종철 씨는 "힘겹게 살아온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몇 시간씩 눈물을 펴며 쏟아내기도 하고, 차마 떨어지

지 않는 발걸음을 돌리며 지갑을 털어놓은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한다. 김동명 씨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소녀가장들이 방송을 꺼리는 경우도 많지만 몇 번씩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마음을 터놓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그만큼 속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도 자원봉사자들만의 노하우다. 장인희 씨는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날이 많아 10여 년을 운동화만 신고 다녔는데, 최근에는 굽이 높은 구두를 하나 마련했다"며 수줍게 웃는다. 이렇듯 힘든 일이지만, 10여 년이 넘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노력이 이웃들에게 '한 바가지의

물'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황문순 씨는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 삶의 활력을 찾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보면 결코 봉사활동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한다. 즐거움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하는 이들이지만,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30여 명 남짓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들은 IMF를 겪으며 1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회당 700~800만원 정도 모였던 후원금도 400~5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봉사자들은 "아직 우리 주위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다"며 청취자들의 관심과 후원을 호소했다. (02)705-5234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p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토니 팩커 (上)

교과 떠나 마음의 문을 여는 수행 전파

명상적인 의문을 탐구하는 샘물센터(The Springwater Center)는 미국 서부 뉴욕주의 시골 땅 200여에이커에 자리잡은 무종파 수행센터다. 토니 팩커(Tony Packer)에 의해 창립된 샘물센터는 토니와 지인들과 수행을 함께 할 것을 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센터 밖에서도 수행생과 자원봉사자로서 수련회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곳의 수행은 어떠한 의식과 절차도 없으며 수행은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 수행 역시 고정된 수행법이나 테크닉, 교리도 없으며 '단순한 깨어있음(awareness)'을 강조한다.

토니 팩커는 어떻게 생각이 자아와 타인이라는 이미지를 건립하는지, 어떻게 권위의식이 생기는지, 어떻게 번리의식과 갈등이 인간에게 생기는지, 자각과 통찰이 마음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토니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청년 이후 생애의 대부분을 미국 뉴욕주 서부에서 보냈다. 그녀는 1976년부터 수련을 지도해왔다.

토니는 샘물센터를 이끄는 소인이외도, 매년 유럽과 미국 캘리포니아로 여행하며 수련회와 강연회를 열고 있다. 그녀는 <이 순간 해야 할 일> <깨달음의 빛> <현존의 경이로움> 등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신을 스승이라고 부르지도 않으며, 어떠한 권위도 내세우지 않는다. 그녀의 수행법은 즉각적이면서도 단순하고, 근본적이면서도 평범하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나고 있으며 흔쾌히 교과를 떠나 함께 수행한다.

토니 팩커는 1967년 로체스터선원에서 필립 카플로우(선 의 세 기둥)의 저자 노사로부터 선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법제자로 지명을 받았고, 전통 종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한 토니는, 결국 후계자의 지위를 사양했다. 크리슈나무르티(Jiddu Krishnamurti, 1895~1986)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팩커는 불교 종파에 단연되어 있는 전통적인 의례와 고위성직자의 권위 의식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

신지화학(Theosophy Society)에 의해 불교 14세의 어린 나이에 '세계의 스승'이라는 칭호를 얻고 '동방 별의 교단(The Order of Star in the East)'이라는 단체의 추앙을 받은 크리슈나무르티는 자신에게 주어진 추앙과 명예를 거부했던 사람이었다. 1929년 33세에 크리슈나무르티는 네덜란드에서 열린 집회에서 '동방 별의 교단'의 해체를 전격 선언했다.

"여러분이 이르고자 하는 진리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어떤 종교나 교단을 통해서도 진리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무한하며 제약이 없고, 조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도달할 곳이 아니라 개



◁ 토니 팩커

인이 빠져서 노력을 통해 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게는 이제 단 하나의 목표만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돕고, 저마다 가진 한계를 깨뜨릴 수 있도록 돕는 일만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다가가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유로워지려는 결단과 불교는 노력이라고 그는 주장한 것이다. '지성적인 붓다'로 불리우던 크리슈나무르티의 영향을 받은 팩커의 종단 탈퇴는 열렬, 절하기, 향 피우기 등 전통 수행을 낫설어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많은 서구인들의 호응을 얻었다.(계속)

김재경 기자

의식, 절차 없는 '단순한 깨어있음' 강조

불교전통의례, 성직자의 권위의식서 탈피



◁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6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안마봉사를 하고 있다.

따뜻한 침 한방에 마음 훈훈

부광맹인불자회 침, 뜸, 안마 봉사

지압등 자격증 갖춘 전문가

도움에 대한 작은 보답

6일, 통도사부산포교원 2층 '우리방'에서는 시각장애인 불자모임인 부광맹인불자회(회장 배홍만)가 매월 첫째주 일요일마다 실시하는 침, 뜸, 안마봉사가 열렸다. 이날 신민수(50) 회원은 한 어르신에게 침을 놓은 뒤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안

마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손끝에 눈이 달린 듯 발끝과 머리부분에 정확히 침을 놓는 솜씨가 예상외로 정확했다. 옆에서 노 보살을 치료중인 김대용(38) 회원의 손놀림도 능수능란하다. 19년째 물리 지압원을 운영중인 신민수 회원은 비록 봉사활동에 동참하는 회원 모두가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이라 '우리방'을 찾는 불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고생하던 중 어머니를 따라 왔다는 홍소현(29)씨는 "병원, 물리치료원 등 안 가본 곳이 없는데 정말 잘신다. 정성이 느껴지고 몸도 가벼워졌다"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이처럼 한 달에 한번 부

광맹인불자회 회원들은 약사보살의 화현이 되어 육체의 고통을 말끔히 씻어주고 있다.

6년 전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눈이 보이지 않는 회원들이 행어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회원들의 실력은 입소문이 나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김무일, 이귀숙, 한옥련 보살 등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오후 2시부터 치료를 시작해, 2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많게는 30~40명을 치료할 때도 있다. 그러나 힘든 줄을 모른다. 장애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받은 도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5년 전 사고로 시력을 잃은 김종현(42)씨는 "처음 눈을 볼 수 없게 됐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봉사활동은 내가 살아있다는 확인과도 같다."고 봉사의 기쁨을 표현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NAWANG KHECHOG

"티베트 불교 라마승 출신인 피리 연주자 나왕 케축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그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강한 에너지를 느낀다. 이는 티베트 고원의 에너지라 해도 좋고 히말라야의 영적인 힘이랄 수도 있다. 우리는 그의 음악을 통해 강하고 신비한 에너지를 받는다."

김진욱 (음악평론가)

대나무 피리에 실려온 영혼의 선율
나왕 케축 '카루나(慈悲)'
NAWANG KHECHOG · KARUNA

- '실크로드'의 기타로(Kitaro) 프로듀스 · 협연
- 미국 인터넷 음악 사이트 ALL MUSIC GUIDE: ★★★★★

1. 해서 명리권역 신곡판/세트 조영수 편지/장가 30,000원
2. 21c 최신편 우리말 대문만세력 4*96판/세트 조영수 편지/장가 10,000원(대) 신곡판/세트 조영수 편지/장가 10,000원(소)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곡판/김명환 편지/장가 1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곡판/양정복 김봉서 지음/장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곡판/김명환 편지/장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96판/이신원,전호일 공저/장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곡판/양정복/송원순 지음/장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살심부 신곡판/양정복/부위 羅柱洞/장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곡판/양정복 曹慶浩 /장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곡판/양정복 曹慶浩 /장가 15,000원
11. 신도정비결 신곡판/세광 지음/장가 8,000원
12. 사주 입상학 신곡판/양정복/이상욱 지음/장가 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곡판/양정복/전성백 서/장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곡판/송기우 지음/장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사주팔자 신곡판/양정복/김성진 지음/장가 30,000원
16. 꿈풀이 살풀이 대백과 신곡판/정현우 지음/장가 17,000원
17. 명기총서의 기상학 비결 신곡판/김용석 지음/장가 15,000원
18.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곡판/양정복/문길여 지음/장가 25,000원
19. 육효학 핵심비결 신곡판/양정복/송원순/김지음/장가 30,000원
20.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곡판/양정복/박봉우 지음/장가 25,000원
21. 적현수 영의 신곡판/양정복/공유성 지음/장가 40,000원
22.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곡판/우영제 지음/장가 18,000원
23. 21c 천문만세력 4*96판/정수홍 지음/장가 35,000원
24. 신선 명리학 첫걸음 신곡판/정수홍 지음/장가 15,000원

1. [주] 비인영무역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5-8 서대빌딩 8층 Tel: 622-1364 Fax: 622-5624

21C 천문만세력

단 한번의 사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비법은?

같은날 출생하여도 출생시간에 따라서 대운수가 다르다!
기존 만세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월까지 표출되는 나의 행운수!
간략대운수의 오차를 벗어나는 행운 만세력!
기존만세력은 대운수를 월까지 정확하게 산출해 주지 못한다!

대법원 확정 한자 인명사전

관음역서 시리즈

1. 해서 명리권역 신곡판/세트 조영수 편지/장가 30,000원
2. 21c 최신편 우리말 대문만세력 4*96판/세트 조영수 편지/장가 10,000원(대) 신곡판/세트 조영수 편지/장가 10,000원(소)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곡판/김명환 편지/장가 1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곡판/양정복 김봉서 지음/장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곡판/김명환 편지/장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96판/이신원,전호일 공저/장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곡판/양정복/송원순 지음/장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살심부 신곡판/양정복/부위 羅柱洞/장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곡판/양정복 曹慶浩 /장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곡판/양정복 曹慶浩 /장가 15,000원
11. 신도정비결 신곡판/세광 지음/장가 8,000원
12. 사주 입상학 신곡판/양정복/이상욱 지음/장가 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곡판/양정복/전성백 서/장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곡판/송기우 지음/장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사주팔자 신곡판/양정복/김성진 지음/장가 30,000원
16. 꿈풀이 살풀이 대백과 신곡판/정현우 지음/장가 17,000원
17. 명기총서의 기상학 비결 신곡판/김용석 지음/장가 15,000원
18.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곡판/양정복/문길여 지음/장가 25,000원
19. 육효학 핵심비결 신곡판/양정복/송원순/김지음/장가 30,000원
20.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곡판/양정복/박봉우 지음/장가 25,000원
21. 적현수 영의 신곡판/양정복/공유성 지음/장가 40,000원
22.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곡판/우영제 지음/장가 18,000원
23. 21c 천문만세력 4*96판/정수홍 지음/장가 35,000원
24. 신선 명리학 첫걸음 신곡판/정수홍 지음/장가 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 서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초기공법

건강을 부르는 氣 부를 부르는 氣

몸과 정신건강의 혁명
현대병 치료의 한계를 기공으로 간단하게
이영일 편지 · 사책판 · 212쪽 · 양장본 · 값 12,000원

생명의 원천을 활성화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건강법

핵산! 암을 이기다

'암으로 1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죽음의 선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암 환자의 기쁨의 소리! 이제 병원에서도 상용하기 시작한 핵산의 경이로운 효과를 알기 쉽게 해설한, 비로 그 책.

히로야마 김수, 미야나기 요시미카 지음 · 사책판 · 190쪽 · 양장본 · 값 12,000원

신비의 건강요가 **아유르베다**

오천년의 역사를 지닌 인도 전통의 예방의학 체계로서, 아유르베다는 생활과학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과 장수(長壽)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습세기에 걸쳐 확인하고 다듬어진 지침들을 제시한다.

바스타 레드 지음 · 신곡판 · 206쪽 · 값 7,000원